

CEO Information

2013. 5. 15. (제895호)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 3大 FTA의 부상 -

목차

I . 거대 FTA의 등장

II . 3大 FTA의 쟁점과 전망

III . 거대 경제블록화의 영향

IV . 시사점

작성 : 권혁재 수석연구원(3780-8043)
hj10.kwon@samsung.com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구본관 수석연구원
박현수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요약 》

거대 FTA의 등장으로 세계 통상질서 재편이 예상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EU와는 환대서양 경제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이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고 있다. 3대 FTA가 모두 타결될 경우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이다. TTIP는 GDP 기준 세계경제 비중이 45%이고, TPP는 38.4%, RCEP은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통상질서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또한 3대 FTA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어 거대 블록의 등장은 한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3대 FTA의 전망과 영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新FTA 삼국지: TPP → TTIP → RCEP 순으로 타결되어 거대 블록 간 경쟁이 심화

협상체결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TPP(2013~2014년) → 양자 간 FTA인 TTIP(2014~2015년) → RCEP(2015년 이후)의 순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수준은 미국-EU FTA인 TTIP > 미국 주도 다자간 FTA인 TPP > 중국 등 신흥국 주도 RCEP의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가운데 3대 FTA 간 경쟁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 등 게임의 룰을 놓고 TTIP, TPP vs RCEP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며, 아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CEP과 TPP는 역내 회원국 수 확대 등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 ①: 세계경제 활성화와 무역 확대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더 성장하여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로 추가적인 성장률을 보면, TTIP의 경우 EU 0.3~0.5%p, 미국 0.2~0.4%p, TPP는 일본 등 참여국 0.4~1.5%p, RCEP은 중국 등 참여국 최대 1.8%p 등으로 추정된다.

영향 ②: 선진국의 국제규범 주도로 신흥국 견제 심화

TTIP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해 양측 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 ③: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회원국 확대 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브라질 등은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회원국이 3대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거대 블록의 등장으로 기존의 WTO는 상당 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향 ④: 한국의 FTA 선점효과가 약화되고 시장 경쟁이 격화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한-EU FTA의 선점효과가 감소하고 미국과 EU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이 체결되면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3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베트남 등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해외전략을 점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

기업은 3대 FTA 체결로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일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내 생산거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 기술 등 규제 리스크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3대 경제블록의 등장과 영향



I. 거대 FTA의 등장

거대경제권이 주도하는 블록화 경쟁이 확산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

- 미국은 일본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¹⁾)과 EU와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²⁾)을 동시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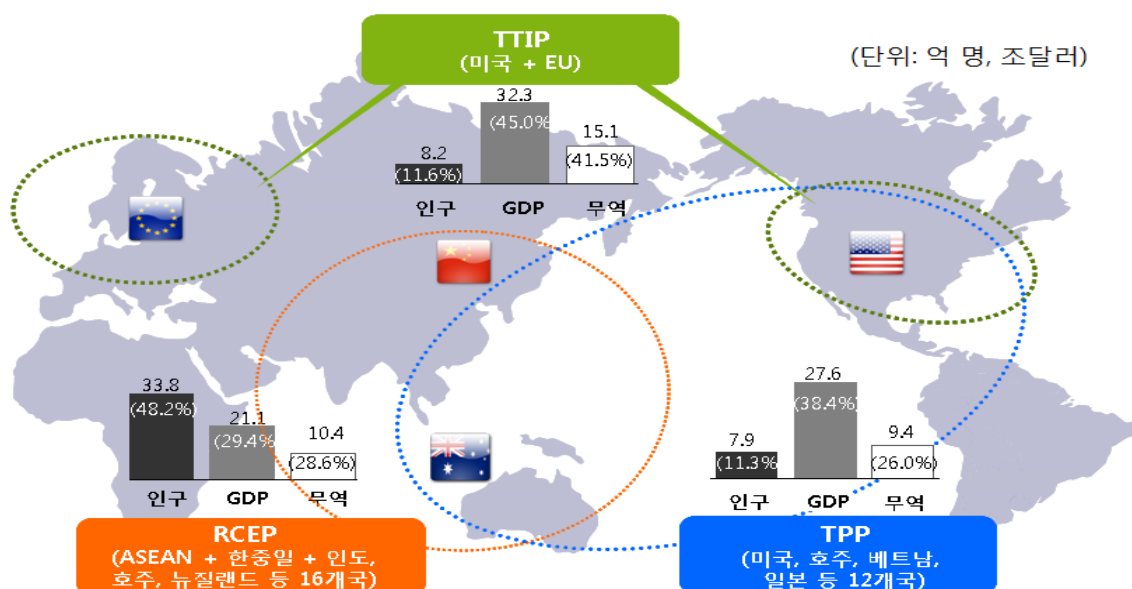
• 일본은 2013년 3월 TPP 참여를 선언했고, 2013년 4월부터 EU-일본 FTA도 협상을 시작

- 이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³⁾) 등 동아시아 다자간 FTA 협상도 본격화

□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 유럽, 아시아를 3大 축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블록이 형성될 전망

- TPP, RCEP, TTIP 블록의 GDP는 기존 거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EU 등을 능가하는 규모(전체 참여국의 GDP는 세계경제의 79.5%)

주요 경제공동체의 경제지표



¹⁾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칠레 등 아태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2010년부터 1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연내 타결이 목표
²⁾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6월 협상개시 예정이며, 2년 내 타결이 목표
³⁾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FTA로 2013년 6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5년 타결 목표

거대 FTA 경쟁 배경: 선진국(수출확대, 통상주도권) vs 중국(역내 헤게모니)

- 미국 등 선진국은 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난 타개, 글로벌 통상주도권 강화,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대규모 블록화를 추진
 -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TPP와 TTIP를 통해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통상 헤게모니를 강화
 - 주로 TPP는 아태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TTIP는 수출증대 및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자(Rule Setter) 역할⁴⁾
 - EU와 일본은 각각 수출 확대, 대미관계 개선 등 정치경제적 이유로 미국의 전략에 동참
- 중국은 선진국 주도 블록화의 목표가 중국의 고립과 외부압박을 통한 시장개방에 있다고 인식하여, RCEP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로 대응
 - 규모에 비해 경제가 고도화되지 않은 중국은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양자간 FTA 전략을 구사해왔는데, 최근 RCEP과 같은 다자간 FTA로 범위 확대

미국 통상정책의 대전환: 세계주의(WTO)에서 지역주의(FTA)로

- ▷ 과거 미국 통상정책은 지역주의(FTA)보다 세계주의(WTO)에 충실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FTA는 보조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적 목적보다 외교안보 목적이 강했음
 - 미국의 기존 FTA 체결국은 이스라엘, 호주, 한국 등 동맹국 중심
- ▷ 최근 지역주의(FTA)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재편되며 실리적 기조로 전환
 - FTA 체결국이 선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출 증대라는 실용적 목표가 강조

⁴⁾ The White House (2013.2.13.). Statement from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European Council President Herman Van Rompuy and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osé Manuel Barroso.

거대 FTA의 출현은 한국 수출에 새로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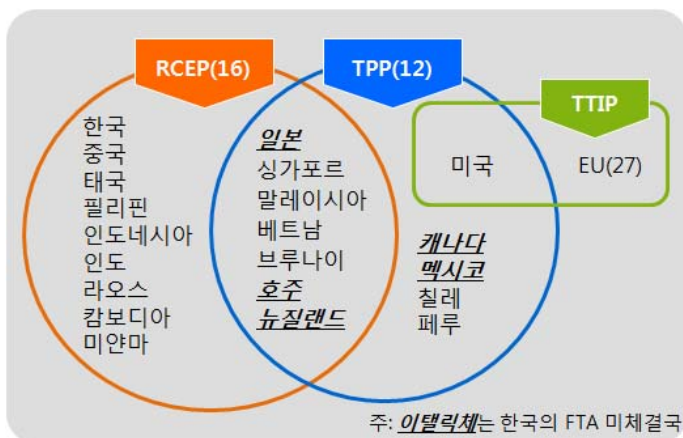
□ 3大 FTA에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경제와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한국 수출 중 3大 FTA 참여국들에 수출하는 비중은 73%이고, 특히 RCEP 참여국들에 수출하는 비중은 50%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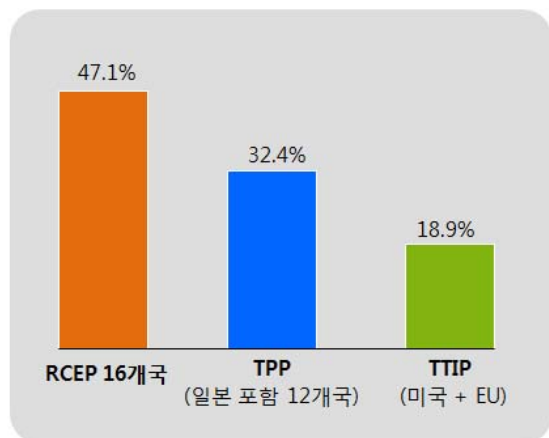
· 한국 5大 수출국(2012년, 억달러): 중국(1,343), 미국(585), 일본(388), 홍콩(326), 싱가포르(229)

- TPP 참여국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

3大 FTA 참여국 현황



한국의 3大 FTA 참여국 수출 비중



□ 거대한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3大 FTA가 성사될 경우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기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미 발효된 한미 및 한-EU 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Ⅱ. 3大 FTA의 쟁점과 전망

新FTA 삼국지: 거대 블록 간 경쟁시대가 도래

- ▶ 3大 FTA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
- 협상체결 순서: TPP → TTIP → RCEP
 - 개방 수준: TTIP > TPP > RCEP
 - 아시아·태평양으로 지역이 겹치는 TPP와 RCEP 간에 회원국 확대 경쟁이 지속되고 TTIP와 RCEP 간에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제통상질서는 TTIP - TPP - RCEP가 세 축을 이루며 상호 경쟁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TTIP와 TPP의 공세에 RCEP이 대응하는 형국
- 아태지역에서는 RCEP과 TPP가 회원국 외연 확대와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

3大 FTA 타결 시점 및 주요 내용 전망

FTA	타결 시점	개방수준 및 주요 내용	한국 FTA 수준
TTIP	2014~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높은 수준의 FTA · 상품 관세 대부분 철폐 · 최고 수준의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 고도의 통상규범: 지재권, 환경 및 기술규제 주도, 제품 안전 및 표준 통일 등 	한미 FTA 한-EU FTA
TPP	2013~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수준의 FTA · 일부 예외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공정경쟁 환경 확립 등 	
RCEP	201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진적 FTA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서 국가별 예외 인정 · 무역 및 투자 규제 완화, 공정경쟁 확립에 동의하나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① TTIP: 세계 최대 선진 경제권의 탄생

- ▶ 미-EU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국제규범의 주도권을 강화
- 관세 철폐는 용이하겠지만, 투자 및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보조금 등 쟁점사항이 많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부 쟁점사항을 유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2년 내 타결 전망

□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과 EU가 1년 반에 걸쳐 협상 준비를 한 후 2013년 6월 말 TTIP 협상을 개시하여 2년 내에 타결한다는 목표

- 양측은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수출이 확대되어 국내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이해가 일치

- TTIP로 미국과 EU의 GDP는 추가적으로 0.5~1%p 증가하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⁵⁾

- 2011년 11월 이후 고위급작업반(HLWG)⁶⁾을 중심으로 협상 준비를 한 후 2013년 2월 13일 미-EU 정상회의에서 TTIP 협상 개시를 선언

- 고위급작업반은 TTIP의 논의 대상으로 관세 철폐, 투자·서비스·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제거, 기술표준의 적합성 제고, 국제 통상규범 및 협력 등을 제시⁷⁾

□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예상되지만, 비관세장벽, 농업 등 부문에서 쟁점이 존재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예상

- 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관세 분야는 양측 모두 기존의 관세율이 낮아 타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

- 평균 실행 MFN(최혜국대우) 관세율(%): 미국 3.5, EU 5.3, 세계 9.6

⁵⁾ Francois, J. (2013).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ssessment (Final Project Report).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⁶⁾ EU-US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⁷⁾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2013.2.11.). Final Report.

- 환경규제, 보조금 등 비관세장벽 및 규제분야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
- 미국은 GMO(유전자조작식품)와 문화산업까지 포괄하는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화다양성 보호 등을 이유로 시장개방에 반대 입장

TTIP 협상 주요 쟁점별 양측 입장

쟁점	미국	EU
비관세장벽 완화	- GMO(유전자조작식품), 성장호르몬 투여된 쇠고기 수입에 긍정적 입장	- 프랑스 등 농업국 중심으로 소극적 입장
보조금 등 규제 이슈	- 유럽의 농업보조금 중단	-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 이슈로 WTO에서 분쟁 중
서비스 산업	- 영화 등 문화산업 개방 - 금융거래세 등 규제 완화	- 소극적
각종 표준 및 기술장벽	- EU 환경규제 완화	- 소극적
기타 정부조달 등	- 소극적	- '바이 아메리카' 정책 비판

□ TTIP는 당초 목표보다 다소 낮은 개방 수준에서 2년 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

- 상호 민감한 쟁점이 많아 목표기한 내에 높은 수준의 TTIP를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⁸⁾
- 하지만 양측이 비관세장벽이나 규제분야 등 상호 민감분야 개방을 최소화한다면 2014년쯤 타결도 가능
- 미국과 EU 모두 TTIP 체결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⁹⁾하고 국제통상 규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타결 내용보다는 시기를 중시

⁸⁾ 베텔스만재단과 대서양이사회가 재계, 학계, 정부인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가 중간수준의 TTIP를 예상(Barker, T. & Workman, G. (2013).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mbitious but Achievable. Atlantic Council and Bertelsmann Foundation.)

⁹⁾ 2014년 10월 바호주 EU집행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4년 11월 초에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 되므로 양측 모두 TTIP의 조기 체결을 희망

② TPP: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블록

▶ 일본의 참여로 미일 FTA 성격을 띠는 아태 거대 경제블록 형성

- 협상국 간 경제발전 속도와 민감품목이 달라 합의 도출에 난항 예상
- '예외 없는 관세 철폐'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안별 예외를 두는 다자간 FTA

□ 2013년 말 타결¹⁰⁾을 목표로 빠르게 협상 중

-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6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는 일본도 협상에 참여¹¹⁾할 예정

□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2013년 내 타결에 난항 예상

- 농산물은 호주, 뉴질랜드가 관세 철폐에 찬성하고 일본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는 품목에 따라 입장이 교차
 - 외자투자 규제 철폐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찬성하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개도국은 강하게 반대

TPP 협상 주요 쟁점별 참가국의 입장

쟁점		찬성	반대
승용차, 부품 관세 철폐		일본	미국, 호주
외자투자 규제 철폐		미국,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국유-민간기업 간 경쟁조건 정비		미국, 일본	베트남
섬유제품 관세 철폐		베트남	미국
검역·식품안전기준 완화		미국	일본
농산물 관세 철폐	쌀	미국	일본
	밀/보리, 소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유제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사탕	호주	일본, 미국

자료: 각종 언론 보도자료 종합

¹⁰⁾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TPP Framework를 발효하고 연말까지 협상 타결

¹¹⁾ 2013년 4월 20일 개최된 11개 TPP 협상 참여국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협상 참여를 공식 인정하는 선언 발표 → 빠르면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17차 TPP 관련국 협상에 일본도 정식 참여

- 다만, 협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상호 민감부분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협정의 개방수준을 조정할 경우, 연내에 극적 타결도 가능

□ 최근 미일 사전협의를 통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 2013년 4월 미일 간 사전협의로 일본의 일부 농수산물 관세 철폐 예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 등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
- 미일 사전협의를 일본과 여타국 간 협상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 캐나다 등은 일본에 미국 수준의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를 요구
 - 일본은 여타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를 농산물 시장 보호의 방패로 삼을 태세

□ TPP는 '전 품목 예외 없는 관세 철폐'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안별로 이해관계국 간 예외를 두는 중간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

- 관세 분야는 '원칙적으로 참여국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¹²⁾
 -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 회원국 10년 후 관세 철폐'에 합의하되, 예외 조항으로 미국은 일본산에 대해 일정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추가 설정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역시 전반적으로는 통일된 기준으로 합의하되 외국인투자 규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가능성
 - 경제발전 속도 및 정치경제 체제가 현저히 차이 나는 베트남 등 개도국에 선진국과 동일한 물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¹²⁾ 국가 간 개방수준,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가 나 통일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③ RCEP: TPP에 맞선 범아시아 단일시장 형성

▶ 쟁점을 해결할 리더십 부재로 단기간 내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

- 역내 선진국(韓, 日)과 개도국(中, 印, 아세안) 간 첨단제품 vs 농산품 등에서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이 주요 이슈가 될 것
- 일본 등 주요국이 TPP에 주력하고, 한국과 중국도 별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TPP 타결 이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2015년 이후 타결 가능

□ TPP의 확산으로 동아시아 경제질서 형성에서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아세안, 중국 등은 역내 16개국과 RCEP 협상 출범을 선언

- 당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시작됐으나, 중일 간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장기 표류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난제: 선진국(일본)-개발도상국(중국)-저개발국(미얀마) 등 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중일 간 주도권 다툼, 역사 및 영토분쟁 등 정치적 문제도 산재

- 그러나 TPP에 동아시아 국가¹³⁾의 참여가 확대되자, 역내 통상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중국과 아세안 등이 RCEP 결성에 적극적

□ RCEP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중국, 아세안 등은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며 대립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과 일본은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거나, 중국 등은 관세 철폐 장기화나 예외 인정과 같은 점진적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 단,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 아세안이 가격경쟁력 있는 농업 분야가 크게 취약해 공세를 계속하는 데 한계

□ 따라서 RCEP은 아세안이 한중일 3국 등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¹³⁾ 2013년 현재 TPP에는 이미 참여 중인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외에 일본이 신규로 참여를 선언했고, 한국도 간접적으로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아세안+1 FTA 개방수준¹⁴⁾: 94.5%(한-아세안 FTA), 94.7%(중-아세안), 92.8%(일-아세안), 79.6%(아세안-인도)

RCEP 협상 주요 쟁점별 참가국의 입장

쟁점	찬성	반대
농산품 관세 철폐	- 아세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대체로 긍정적	- 한일은 매우 소극적 - 단, 한일 양국에서 한국은 일본 농산품 개방요구
첨단제품 관세 철폐	- 한일은 긍정적	- 아세안, 중국은 소극적 - 호주는 사안별 반대
노동집약적 제품 관세 철폐	- 중국 등은 적극적	- 한일은 소극적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 한일, 호주는 적극적 - 단, 인력이동은 중국, 아세안 등이 적극적	- 중국, 아세안, 인도는 소극적 (금융, 통신, 인프라 등)
정부조달, 비관세장벽, 경쟁정책 등	- 한일은 적극적 - 단,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일본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 중국 등은 대체로 소극적

□ RCEP 협상은 한중일 FTA와 TPP 협상결과와 연동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3대 FTA 가운데 가장 늦게 타결될 가능성

- RCEP 16개국 중 경제규모 2위인 일본을 비롯한 7개국¹⁵⁾은 TPP 협상에 이미 참여 중이고, 한중일 3국과의 FTA도 별도로 진행 중
 - 일본이 TPP에서 농산물 일부를 개방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RCEP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인도, 인도-호주 간에 처음 진행되는 민감한 협상도 상당수
- 아세안의 리더십만으로는 RCEP 협상을 주도하기 쉽지 않아, TPP와 한중일 FTA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RCE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

¹⁴⁾ HS 6단위 기준, 이창재 (2012.10.17.). "RCEP 세미나 자료집". 외교통상부.

¹⁵⁾ 아세안 4개국과 뉴질랜드, 호주도 TPP 협상에 참여

Ⅲ. 거대 경제블록화의 영향

① 3大 FTA의 파급효과: 세계경제 활성화와 무역 확대

□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大 FTA 체결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 거대 경제블록 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수요 확대가 가능할 전망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인하로 무역이 촉진되고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
- 3大 FTA 발효 시 해당 국가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
 - FTA 발효 시 예상되는 GDP 증가 효과: TTIP(EU: 0.3~0.5%p, 미국: 0.2~0.4%p)¹⁶⁾, TPP(0.4~1.5%p)¹⁷⁾, RCEP(1.8%p)
 - FTA 협상 참여국이 증가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¹⁸⁾

□ TTIP는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와 정부조달시장 개방 효과도 클 것

- 관세 철폐만으로 미국과 EU의 수출이 1,000억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
 -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원료 및 광업제품, 가공식품이 최대 교역품목이며, 가공식품, 승용차, 농림어업, 화학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서비스시장 개방 시 양자 간 수출은 최대 150억유로 증가할 전망
 - EU의 對美 분야별 개방효과: 금융 > 보험 > 비즈니스서비스

¹⁶⁾ Francois, J. (2013).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ssessment (Final Project Report).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¹⁷⁾ Petri, P. A. (2012). Economics of the TPP and RCEP negotiations. Brandeis University and East-West Center.

¹⁸⁾ 추정 결과, TPP에 11개국(일본 제외)이 참여할 경우 GDP는 0.4%p 증가에 그치지만, 16개국(기존 12개국에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이 참여하면 GDP가 1.5%p 증가

- 정부조달시장 개방 시 수출이 최대 20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조달시장 연간 규모: 미국 7조달러, EU 2조유로 이상

TTIP 체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2027년까지)

(단위: %, 억유로)

항목	지역	제한적 FTA			포괄적 FTA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정부조달시장 개방	제한적 개방	완전 개방
GDP 증가	EU	0.10(238)	0.02(53)	0.02(64)	0.3(683)	0.5(1,192)
	미국	0.04(94)	0.03(74)	0.01(19)	0.2(495)	0.4(949)
양자 간 수출	EU	6.6(438)	0.7(54)	1.1(70)	16.2(1,078)	28.0(1,870)
	미국	12.4(538)	0.7(29)	0.8(34)	23.2(1,009)	36.6(1,591)
對세계 수출	EU	1.2(437)	0.2(58)	0.2(71)	3.4(1,252)	5.9(2,200)
	미국	1.9(573)	0.2(55)	0.2(59)	4.8(1,421)	8.0(2,395)

주: 제한적 개방 - 관세 98% 철폐, 비관세장벽 10% 철폐, 정부조달시장 25% 개방

완전 개방 - 관세 100% 철폐, 비관세장벽 25% 철폐, 정부조달시장 50% 개방

자료: Francois, J. (2013).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ssessment (Final Project Report).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RCEP의 경우, 전체 개방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철폐와 투자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역내무역이 활성화될 전망

- 관세 철폐 이외에 투자 자유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해소로 인한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현재 44%에 이르는 동아시아 역내무역 비중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역내 분업체제 강화로 중간재 및 부품 무역이 증가

□ TPP가 발효되면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각국의 관세율 격차가 커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증가 효과가 클 전망
- 평균 실행 MFN 관세율(%): 베트남(9.8) > 멕시코(8.3) > 말레이시아(6.5) > 칠레(6.0) > 일본(5.3) > 캐나다(4.5) > 미국(3.5) > 호주(2.8) > 싱가포르(0)

- 투자환경 개선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내 아시아 참여국들의 입지가 강화

② 선진국의 국제규범 주도로 신흥국 견제 심화

□ 3大 FTA 체결 시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제정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양측이 각종 기술규정과 표준까지 통일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구미국가의 기술 주도권이 더욱 강화
- 수출국은 최대시장을 보유한 양측이 정한 각종 기준과 표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EU가 표준 및 규범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유럽의 경쟁우위 유지 전략

- ▷ 유럽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IEC) 등 국제표준 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럽표준(European Norm)이 세계표준으로 되는 데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
- 국제기구 간사 대부분이 유럽계: ISO 1위인 독일은 137명이고 12위인 한국은 17명으로 격차가 8배. 1~10위 중 유럽이 6개국으로, 유럽 간사가 절반에 육박(2012년)
- 유럽표준 → 국제표준에 특혜: IEC와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간 협정 체결로, 유럽 표준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에 회부

□ 이에 따라 미국·EU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후발기업의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선진국과 경쟁하는 국내 IT, 자동차 등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

□ 미·EU는 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 취소와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요구

- 미국과 유럽은 중국 등 신흥국의 반경쟁적 정책 개선을 더욱 촉구
- 중국의 국유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부과와 경쟁정책 개선 등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③ 3大 FTA 출현에 따른 국제통상질서 변화

□ 3大 FTA의 외연확대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참여국가들의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가속화될 전망

- 미중의 세계경제 주도권 확보 경쟁의 성격도 지닌 TPP와 RCEP은 협상 중에는 물론 발효 후에도 참가국 확대 노력을 지속할 전망

• TPP는 궁극적으로 아태FTA(FTAAP)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RCEP도 서남아시아 등으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

• 반면, 선진경제권의 양자 간 FTA로서 통합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TTIP는 신흥국 참여가 어려워 외연확대 여지가 협소

- 비참여국가들은 거대 FTA에 의한 통상질서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블록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블록을 형성할 전망

• 통합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RCEP에는 참여가 비교적 용이해 러시아 등 신흥국이 동참할 가능성¹⁹⁾

• 남미의 메르코수르 등은 독자 블록을 강화할 가능성²⁰⁾

3大 거대 FTA과 군소 FTA 비교

(단위: 억 명, 조달러, %)

구 분		3大 거대 FTA			군소 FTA	
		TPP	TTIP	RCEP	메르코수르	GCC
인구	규모	7.9	8.2	33.8	2.9	0.5
	비중	11.3	11.6	48.2	4.1	0.7
GDP	규모	27.6	32.3	21.1	3.2	1.5
	비중	38.4	45.0	29.4	4.5	2.2
무역	규모	9.4	15.1	10.4	0.8	1.6
	비중	26.0	41.5	28.6	2.3	4.3

주: 2012년 기준

자료: Euromonitor

¹⁹⁾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음("TPP引而待发, TTIP箭在弦上--谁想重洗全球贸易牌?" (2013.4.18.), 『新華社』, <http://news.xinhuanet.com/2013-04/18/c_115430198_3.htm>)

²⁰⁾ 3대 거대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동맹은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R), 중동의 걸프협력기구(GC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 중층적 FTA 체결에 따른 문제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

- 기존 양자 FTA와 새로운 다자 FTA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간에 중층적 FTA 관계가 형성
 - 3大 FTA 타결 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3개 협정이 공존하고, 한국은 TPP 가입시 미국과 3개, 일본과 4개 협정이 공존
- 중층적 FTA에 따른 관세율,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이 복잡다기하여 집행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
 - 특히 TPP, RCEP, 기존 양자 FTA 등은 참여국가의 경제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수준이 달라 스파게티 볼 효과²¹⁾가 커질 소지

□ 당분간 거대 FTA가 세계 통상질서를 주도하면서 다자체제가 위축

- 세계경제의 핵심 국가들이 거대 FTA를 주도함에 따라 WTO 체제하의 DDA(도하개발라운드) 추진동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
- 3大 FTA가 성사될 경우 WTO 체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가운데 거대 통상블록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
 - 당분간 WTO는 세계 통상질서를 주도하기보다 국가 간 분쟁해결센터(DSB)로서의 기능을 수행
-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층적 FTA가 다시 WTO와 같은 단일 통상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거대 FTA로 통상체제의 중층구조가 심화되어 스파게티 볼 효과가 급증함에 따라 단일 통상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

²¹⁾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란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지고, 통관 절차 등의 확인이 어려워지며, 규정 준수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④ 한국의 FTA 선점효과 약화와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경쟁국의 FTA 체결 확대로 인해 한-EU, 한미 FTA 체결의 선점효과²²⁾가 감소할 가능성

- 다만 TTIP 체결에 따른 선점효과 감소는 제한적²³⁾

· 미국과 EU는 선진국 시장으로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데다 한국과의 경합품목도 상이

주요국의 평균 MFN 관세율(2011년 기준)

(단위: %)

품 목	미국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전 품 목	3.5	5.3	5.3	4.5	8.3	2.8	2.0	9.6	12.1
농 산 품	5.0	13.9	23.3	18.0	21.4	1.4	1.4	15.6	48.6
비농산품	3.3	4.0	2.6	2.5	6.3	3.1	2.1	8.7	6.6

자료: WTO (2012). World Tariff Profiles 2012.

- 그러나 TPP, 일-EU FTA²⁴⁾가 체결되면 한국의 FTA 선점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²⁵⁾

· 한국과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은 데다가,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등 3대 품목에서 치열하게 경쟁²⁶⁾

· 거대 선진국과의 FTA로 일본기업이 갈라파고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엔저효과까지 가세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제고

²²⁾ 對미국, 對EU 수출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누렸던 관세혜택 등을 총칭

²³⁾ TTIP 체결 시 한국의 對EU, 對미국 수출 감소 효과(TTIP 미체결 대비)는 각각 2.17억달러, 1.67억 달러로 추정(김영귀 외 (2013).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²⁴⁾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 그간 일본의 FTA 전략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농업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EU와의 FTA도 조기 타결될 가능성

²⁵⁾ 일본이 참여하지 않고 기존 11개국만으로 TPP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GDP 감소 효과는 0.02%로 제한적(Petri, P. A. (2012). Economics of the TPP and RCEP negotiations. Brandeis University and East-West Center.)

²⁶⁾ 미국과 EU의 총수입에서 이들 3대 품목의 수입비중은 30~35%이나,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한미 FTA 당시 일본에 대한 수해품목은 승용차,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2012년 기준)

(단위: %)

대상 시장	세계시장			미국시장			EU 시장		
경합 관계	한일	한중	중일	한일	한-EU	일-EU	한일	한미	미일
경합도	49.2	36.9	32.2	47.5	30.7	38.9	38.5	25.8	35.7

주: 세계 및 미국시장의 경합도(similarity index)는 각국의 수출, EU 시장의 경합도는 각국으로부터의 수입(HS 코드 6단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

□ RCEP 체결로 역내시장에서 한중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중국시장에서는 대만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도 FTA 효과를 누리게 되어 자동차, 전자, 화학 등에서 경쟁이 격화
- 인도시장은 이미 FTA가 체결된 한국과 일본 이외에 중국도 FTA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므로 3국 간 경쟁이 심화
- 한중일 3국 모두 FTA를 체결한 아세안도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베트남 등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태국, 인도네시아 등 소비시장에서는 한중일 기업 간 경쟁이 확대


□ TTIP 등이 체결되면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가능

- TTIP 등에서 한미/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투자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미/한-EU FTA의 '미래 최혜국 대우(MFN)²⁷⁾' 조항에 따라 한국은 미국 또는 EU에 해당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 가능

²⁷⁾ 한미/한-EU FTA의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협정 발효 후 다른 나라에게 추가로 개방한 서비스 투자 시장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협정 상대국에게도 개방한다는 규정

IV. 시사점

해외전략을 점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

- 한국기업의 생산거점이 집중된 RCEP, TPP 등의 체결 시, 해외 생산거점의 효율적 조정방안을 강구
 - 한국기업의 생산거점을 역내 지역으로 다변화 및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고
 - 중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제조기지로서 매력이 저하
 - RCEP, TPP 등의 체결로 원산지규정이 통합되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역내 생산거점을 재편하여 대내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TTIP와 TPP가 체결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리스크가 급증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자국 표준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
 - 특히 선진국과 경쟁하는 IT,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지식재산권, 환경규제, 표준 및 기술규범 등의 규제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大 FTA의 등장으로 주력시장의 경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를 강력히 추진
 - 선진국 간 FTA 체결로 기존 한미/한-EU FTA로 인한 비교우위가 사라지게 되므로 품질경쟁력을 더욱 강화
 - 주력시장 외에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건설, 통신 인프라 등의 서비스 분야로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5. 7	5. 8	5. 9	5. 10	5. 1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091.40	1,086.50	1,091.00	1,106.10	1,111.70
	엔/달러(뉴욕시장)	99.350	98.900	98.920	100.605	101.910
	달러/유로(뉴욕시장)	1.30740	1.30770	1.31570	1.30370	1.29710
금리	회사채(3년AA-, %)	2.90	2.91	2.91	2.92	2.93
	국고채(3년, %)	2.54	2.55	2.55	2.55	2.57
	CD (91일, %)	2.81	2.81	2.69	2.69	2.69
	LIBOR (3개월, %)	0.2751	0.2751	0.2751	0.2751	0.2751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02.13	101.69	101.25	101.43	100.30
	WTI(S, \$/배럴)	95.64	96.55	96.11	95.98	95.09
	CRB 현물가격지수	476.56	477.30	476.64	474.76	..
주가지수(KOSPI, 종가)		1,954.35	1,956.46	1,979.45	1,944.75	1,948.70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69	67	68	69	69

< 월별 지표 >

	2011년	2012년	2012.12월	2013.1월	2013.2월	2013.3월	2013.4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6.0	0.8	-0.5	8.0	-9.7	-3.0	..
평균가동률	80.2	78.1	78.4	78.6	77.6	75.7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2	1.6	0.7	1.3	0.1	0.7	..
실업률	3.4	3.2	2.9	3.4	4.0	3.5	..
실업자(만명)	85.5	82.0	73.7	84.7	99.0	88.3	..
총취업자 수(만명)	2,424.4	2,468.1	2,440.2	2,405.4	2,398.4	2,451.4	..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4	1.5	1.4	1.3	1.2
생산자물가 상승률 ²⁾	6.1	0.7	-1.2	-1.6	-1.6	-2.4	..
생활물가 상승률	4.4	1.6	0.7	0.8	0.8	0.8	1.2
수출(억달러, FOB) ³⁾	5,552.1	5,480.8	450.3	457.0	423.2	474.4	..
(증감률)	(19.0)	(-1.3)	(-5.7)	(10.9)	(-8.6)	(0.2)	..
수입(억달러, CIF)	5,244.1	5,195.8	431.1	452.2	403.0	441.5	..
(증감률)	(23.3)	(-0.9)	(-5.2)	(3.9)	(-10.6)	(-2.0)	..
외환보유액(억달러)	3,064.0	3,269.7	3,269.7	3,289.1	3,274.0	3,274.1	3,288.0

1) 통계청 (2013. 4. 30.) “2013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2012년 12월부터 생산자물가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2010=100)

3) 관세청 (2013. 4. 15.) “2013년 3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11년	2012년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2012년 4분기	2013년 1분기
GDP 성장률 ¹⁾	3.6	2.0	2.8	2.4	1.6	1.5	1.5
민간소비	2.3	1.8	1.3	1.0	1.7	2.7	1.6
설비투자	3.7	-1.8	8.8	-3.5	-6.9	-5.2	-11.5
건설투자	-5.0	-1.5	-0.4	-3.1	-0.3	-4.2	0.7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45.4	44.9	44.2	46.6	43.6	44.9	46.4
개인금융자산(조원) ²⁾	2,302.6	2,485.7	2,365.3	2,384.8	2,449.9	2,485.7	..
개인금융부채(조원)	1,106.0	1,158.8	1,106.9	1,121.4	1,135.4	1,158.8	..
재정수지(조원)	18.6	18.5	-11.3	-11.5	-3.7	18.5	..
경상수지(억달러) ³⁾	260.7	432.5	25.6	111.9	145.6	148.3	100.2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⁴⁾	3,987.2	4,134.4	4,116.6	4,157.7	4,193.8	4,134.4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4)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1년	2012년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2012년 4분기	2013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1.8	2.2	2.0	1.3	3.1	0.4	2.5
	실업률 ²⁾	8.9	8.1	8.2	8.2	7.8	7.8	7.6
	소비자물가 ²⁾	3.2	2.1	2.7	1.7	2.0	1.7	1.5
일본	GDP 성장률 ¹⁾	-0.6	1.9	5.2	0.3	-3.5	-0.4	..
	실업률 ²⁾	4.6	4.3	4.5	4.3	4.3	4.3	4.1
	소비자물가 ²⁾	-0.3	0.0	0.5	-0.2	-0.3	-0.1	-0.9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1.4	-0.4	0.0	-0.2	-0.1	-0.6	..
	실업률 ²⁾	10.2	11.4	11.0	11.4	11.6	11.7	..
	소비자물가 ²⁾	2.7	2.5	2.7	2.4	2.6	2.2	1.7
중국	GDP 성장률 ¹⁾	9.3	7.8	8.1	7.6	7.4	7.9	7.7
	실업률 ²⁾	4.1	4.1	4.1	4.1	4.1	4.1	..
	소비자물가 ²⁾	5.4	2.6	3.6	2.2	1.9	2.5	2.1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